

인간의 한계와 제자의 태도(눅57)

성경말씀: 눅17:1-10

많은 사람들의 문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눅16:1-13 자기의 앞날을 위해 미리 미리 예비한 지혜로운 청지기, 1. 돈, 기회, 학식, 명예를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2.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13).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바리새인들의 반응: 듣고는 비웃음(14): “영원한 가치, 천국이 다 무슨 말인가?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의 외적 모습은 경건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종교적 위선, 위선자들의 종착지는 지옥 부자와 나사로 실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자마자 지옥, 고통의 장소이다(4번).

공홀 No, 완전한 공의 실현, 다시는 기회가 없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No!

오늘의 개요

1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1)

눅9:51 이후, 공생애 반 년 남음,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 제자들 준비

제자들은 구원받은 뒤 주님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된다(1-2). 믿음으로 용서해야 한다(3-5), 섬기는 제자의 바른 태도(6-10)

인간의 한계(1-2)

1절 설명,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겔18:23). 원래 불 호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굳이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1).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구약의 예언(시41:9; 109:8; 슥11:12-13)을 성취할 자가 있다.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결국 그 길을 택함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내가 그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 부자처럼 지옥에 갈 필요 없다.

특히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2): 작은 자들은 소년들, 믿음이 약한 자들, 나사로 같은 자

16장의 부자에게는 청지기직, 그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어야만 한다(죄인들, 세리와 창녀 등).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1) 성경에 관한 믿음 희석: 성경 무오설을 믿으면 수구 꼴통, (2) 잘못된

구원관: 끝까지 행위, 환난 통과, 교회와 목사와 교단에게 충성, (3) 먼저 믿은 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4) 자유를 통한 방종, (5) 목사의 실족거리: 미국 짐 베이커, 지미 스웨가트, 조엘 오스틴,

빌리 그래함, (6) 반 기독교적인 교육: 진화론, 인간 중심주의, (7) 동성애 예찬: 팀 쿡 등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책망과 용서(3-4)

인생을 살다보면 신자, 비신자 모두 우리에게 범법할 수 있다. 누군가가 1절의 예처럼 실수할 수 있다.

1. 특별히 형제의 경우 범법하면 꾸짖는다.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딤후5:20),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2.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4:32). 하루에 7번 범법, 회개, 그러면 용서(2)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가능하면 추궁(비난)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심정(갈6:1)

3. 용서의 의무는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렵다. 큰 의무

4. 꾸짖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자녀 양육과 동일함).

5. 하나님을 보라. 항상 죄를 꾸짖으면서도 항상 용서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용서와 믿음(5-6)

제자들의 요청(5): “믿음을 크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문맥, 용서를 위해 사랑, 이해심을 요청하지

않고 믿음을 요청함. 용서는 믿음의 행위, 회개할 때 계속 용서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진짜

회개했을까?”, “믿고 용서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

6절 설명, 믿음의 능력(겨자씨 믿음),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능력을 키우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주님의 믿음,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약 60년 동안 이런 믿음이 있었다(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요14:12도 마찬가지로: 오순절주의자들의 말씀 남용

영적 선물로서의 믿음(고전12:8-9, 13:2): 이런 믿음은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방언, 대언, 병 고침 등과 함께 사라졌다.

또한 여기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즉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안 된다(엡2:8). 대속 사역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갈2:2).

막11:22-26, 믿음의 능력, 그리고 맨 뒤에 용서, 이런 용서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온다.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다(롬10:17)

겨자씨는 작지만 결국 자라면 열매를 낸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자라면 실제적인 열매를 낸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요셉과 11형제들, 모세와 이스라엘(아론과 미리암), 다윗과 사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 준다(약3:17). 유순하고 온유하다.

제자의 태도(7-8)

꾸짖고 용서하고 기도로 믿음을 키우면서 제자의 일을 할 때 조심할 것, 제자의 자세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믿음으로 큰일을 하려 하면서 매일 생기는 작은 일은 무시하려 하지는 않는가?

신실함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인 제자의 섬김의 동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의 비유(7-9): 주인과 종, 그 당시의 종은 주의 재산, (1) 일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No! (2) 저녁 준비, 나중에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Yes!, (3) 그가 감사하겠느냐? No!

결론(10): 우리는 무익한 종,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다.

즉 꾸짖고 용서하고 믿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늘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무익한 종, 의무를 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교정 반복, 지치고 힘들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였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바른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랑거리가 아니다.

주방, 주차, 교사, 집사, 지역 인도, 헌금, 교회 건축,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익한 종, 의무
눅12:35-37과 어떤 관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왕국 잔치, 그때는 주님이 그리하신다.

15-17장에서는 제자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 경고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사도 바울(고후11:22-30), 무익한 종, 의무를 했다.

빌4:12-13, 청지기직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은 사람(롬8:16-17)

그래서 결국 마6:33

결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 실족거리를 피하라, 두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추구하라. 올바른 태도
겨우 의무만 하려는 성도, 일을 하면서 보상만 생각하는 성도, 둘 다 No, 눅15장의 큰 아들이
이 경우 기쁨이 없다.

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일5: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